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8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8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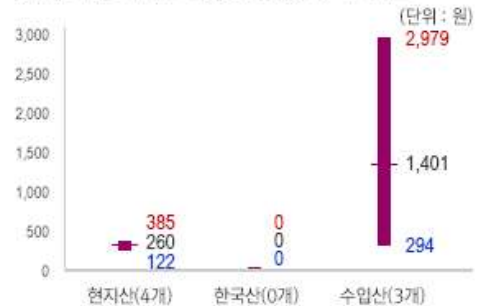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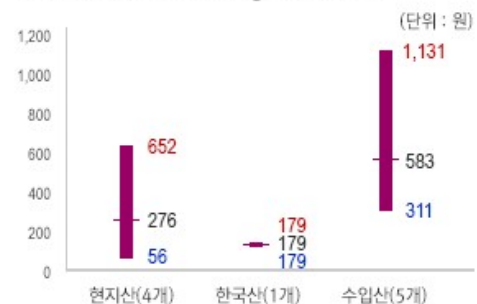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23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2. 음료류 (과채 주스)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23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4. 주류 (민속주)

2)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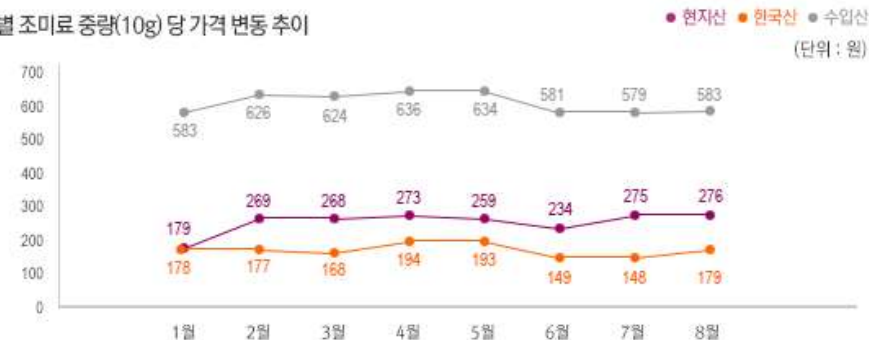
5. 제과류 (비스킷류)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조미료)

2)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23원

주류

수요 감소 ▼ " 날씨가 더울 땐 소주보다 맥주를 더 선호하는 대만 소비자들 "

대만에서 한국산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백기무역유한공사(百棋貿易有限公司)의 담당자 Mr. Jason은 최근 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소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소비자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소주보다 시원한 맥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주의 경우 맥주보다 도수가 높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맥주를 찾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국 소주]

가격 하락 ▼ " 시장공략을 위해 가격을 낮춘 한국 복분자주 "

한국 참이슬, 진로, 매화수, 하이트 등의 주류를 홍콩으로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백기무역유한공사(百棋貿易有限公司)의 담당자 Mr. Jason은 복분자주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복분자주를 제품라인에 추가하였으며, 신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판매량 증진을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Mr. Jason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정상가로 판매할 때도 수요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복분자주]

조미김

가격 상승 ▲ "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도 상승한 한국 조미김 "

한국 식료품부터 일반 생활용품까지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KOREA SHOP CO., LTD.의 대표 Ms. Wei Shin-Hui는 최근 한국 조미김의 가격을 올렸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8월 초에 공급업체로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맞춰 소비자들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Ms. Wei는 소비자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걱정되지만 아직 판촉행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당분간 판매량 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변했다.



[조미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한류열풍에 힘입어 수요 오르는 한국 식품 "

1983년 대만에서 설립되어 각종 스낵, 사탕, 음료 등을 포함한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미맹식품유한공사(味盟食品有限公司)의 담당자는 한국 라면과 스낵제품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일본 제품보다 빠르다며 이는 대만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원인일 것으로 짐작했다. 그는 특히 닭고기맛 라면과 롯데사 과자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고 귀띔하며 한류열풍이 지속되는 동안 수요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사 과자]

음료류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할인행사와 더운 날씨로 사랑받는 한국 음료수 ”

각종 한국 가공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는 KOREA SHOP CO., LTD.의 대표 Ms. Wei Shin-Hui는 34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음료 제품의 매출량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여름이 긴 편이라 아직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Ms. Wei는 판매량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관심을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무더운 날씨 탓에 소스류 제품은 수요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음료수의 판매량이 증진되었기에 한시름 놓고 있다며 남은 여름도 음료수가 '효자상품' 노릇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 음료수]